

기초연금 진정성·민생 호소 등 '정공법' 택할 듯 공약후퇴-인사파동 "총체적 국정 난맥"

'리더십 위기' 차대통령, 향후 정국 해법은

진영 사표수리... 감사원장·검찰총장 선임 시급

'항명' 논란까지 야기했던 진영 보 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지난 30일 낙마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온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장관의 사퇴 파문은 외견상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받았다.

진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자신의 소신에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현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호소하고 임기 내에는 대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야당과의 대치로 정국회화에서 예산안이나 민생입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벌어진 것이어서 정국 위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각과정에서 불거진 취임 초기의 인사파동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냐

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진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에게는 정국 회에 산적한 각종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의 협조 아래 처리하는 것이 버거운 과제다. 야당이 이들 사안을 국정원 개혁 이슈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에 대한 박 대통령과 야당 간 입장은 괴리가 현저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생'을 공개리에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민생'을 앞세워 '우회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직인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임기 초 경험한 대로 또다시 인사 실패가 발생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대대적 인사개혁 요구... 靑 "개각 없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집회에서 "대통령은 '민생'을 앞세워 '우회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직인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민주당은 또 진 장관 사퇴파문을 둘러싼 당·정·청의 이견을 언급, 여권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하는 가 하면 공약후퇴를 '거짓말', '비양심', '몰염치' 등으로 몰아붙여 가며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이미지에 타격을 가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민은 양심 있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며 "양심 대 비(非)양심"의 대결구도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도중 가수 김주자씨의 '거짓말'이란 노래를 들으며 '거짓말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일부 장관들의 교체를 거론하는 등의 개각 가능성을 보도하는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개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인 자리를 메우는 것을 '개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공명선거 연극한마당 개최

전남도 선관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후원한 '어린이 공명선거 연극한마당'이 지난 28일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연극한마당은 선거와 관련된 주제를 초등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한 연극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참가한 학교는 지난 5월 예선을 통과한 ▲영광초등학교(소원을 말해봐) ▲신안 자은초등학교(체소마를 이장선거) ▲광양제철 남초등학교(진정한 승부는 무승부) ▲곡성 인면초등학교(누가 반장이 되면 좋을까?) ▲나주 반남초등학교(각시는 명탐정) ▲장성 서삼초등학교(진정한 반장) 등 6개교이다.

행사 결과 자은초등학교의 '체소마를 이장선거'가 우수상을, 자은초등학교의 김인교사는 우수지도교사상을 받았다. 전남도 선관위는 30일 "연극 영상을 DVD에 담아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부해 청소년들이 교육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광뉴스

채동욱 "유전자검사 실시... 별도 강력한 법적조치"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채 총장은 그러나 자신에게 제기된 '훈의아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청에서 열린 퇴임식 직후 퇴임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발표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채 총장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위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에 앞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뿐이고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훈의아들'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는 지난 27일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앞서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의식한 듯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연광뉴스

"을지훈련 반대·귀태발언 아직 수사중인데..."

안행부, 노조간부 중징계 요구는 위법행위

광주 공무원노조 대표자협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지난 30일 안행부장부가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위법행위자 노조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대표자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는 을지훈련 반대 선전물 배포와 대통령 귀태 비하 불법현수막 게시 등의 사유로 광주지역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배제징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선전물 어디에도 을지훈련에 반대하는 내용이 없고 대통령을 귀태로 비하한 적이 없는데 사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협의회는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데도 안행부가 사법부 판단 이전에 구체적인 징계수준까지 정해 공문으로 시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광주시장과 5개 구 자치단체장들은 안행부의 위법당당한 협조공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는 최근 광주시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법상 집단행위 금지, 풀위유지 의무, 집단연명의 의무 등 및 지체적 정책반대 금지의 위반 등을 들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동·서·북·광산구 지부장에 배제징계를, 광주시 노조위원장과 남구 노조위원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민은행 본영 사옥)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5천
-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5천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에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